

윤석헌의 칼끝, 왜 생보사가 주타깃인가

자살보험금·즉시연금 등 현안 산적... 미운털 박혔다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실시 예정 첫 타깃 삼성생명 등 보험사 관측

이달 중 보험감독 혁신안도 발표 불완전판매 고질적 문제점 개선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칼끝이 보험업계로 향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윤석헌 원장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그 대상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될 것이라 관측이다.

여기에 1월 중 윤 원장이 가동한 자본기구인 보험감독 혁신태스크포스(TF)에서 보험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보험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된다. 윤 원장은 사업비 등 은행과 보험을 비교하며 수차례 지적을 해온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하고 첫 대상으로 보험사를 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준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금감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사를 검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기준 없이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우려하는 수검부담 등의 완화를 위해 핵심 리스크에 집중하는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

방안'을 마련해 2019년 검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 가운데 보험 민원은

60.9%(생보 24.3%, 손보 36.6%)에 달했다. 보험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는 생보사의 경우 9.2건, 손보사는 7.6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보험사들이 몰려나면서 일단락됐지만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사들의 법적 판결을 묻기로 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감원의 임원 인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는 이성재 전 보험준법검사국장(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달 중 보험감독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보험감독 혁신 TF를 만들었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첫 회의 당시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

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소비자 보호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윤 원장은 보험업권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표현해 왔다. 윤 원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며 "은행은 2% 이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하는데 보험은 경비 총당을 먼저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집중함에 따라 시장의 예상대로 특정 보험사가 종합검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종합검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한진중 수빅조선소 회생절차 신청”

KDB산업은행, 리스크 신속 대응 “경영정상화에 차질 없도록 최선”

KDB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자회사이자 해외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HHIC-PHIL Inc.)가 필리핀법원 앞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수빅조선소는 인력감축, 원가절감 등 긴축경영 노력과 본사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운·조선업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며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 회생신청과 관련해 추후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경영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빅조선소와 영도조선소는 주력 선종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전경. /안상미 기자 smahn1@

이 달라 수빅조선소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본사 영업활동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중공업과 긴밀히 협조해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소상공인 120 대출’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8일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대출(한도대출)이며, 우리은행 계좌를 가맹점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로 결제대금을 수납한 소상공인은 대출금 일부(최대 2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월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이자 납부일 당일 바로 처리되며, 대출의 최초 만기일까지 최장 1년만 가능하다.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비를 85% 이상 한도 대출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내부등급 기준에 따라 소호(SOHO)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개인별 한건만 취급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신용보증서 승인 한도 내에서 1000만원 이상 가능하다. 특판 상품으로 총 5000억원 한도에서 취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120년 역사를 함께해 준 소상공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번 상품에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이자를 환급해주는 금융권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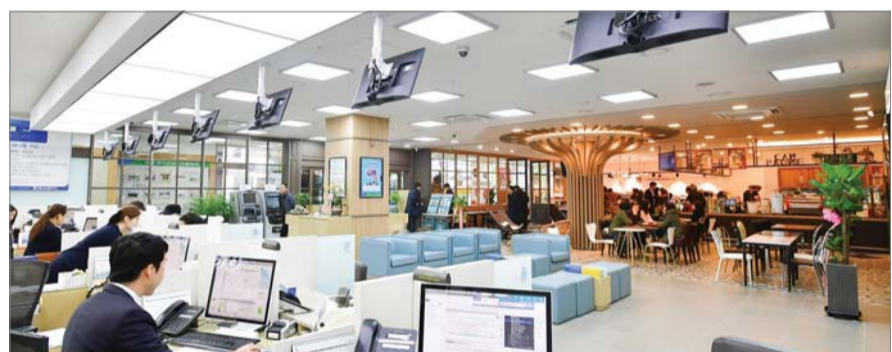
은행-빵집이 한곳에... 농협銀의 특화점포

‘뱅킹 위드 디저트’ 1호점 울산 남구 문수로에 개점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울산 남구 문수로에 은행 영업점과 베이커리를 결합한 특화점포 ‘뱅킹 위드 디저트’ 1호점 개점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뱅킹 위드 디저트’는 은행 영업점과 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가 함께 복합공간으로 운영되는 특화점포다. 단순 금융서비스를 넘어 만남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의 ‘뱅킹 위드 디저트’ 1호점인 울주군지부는 화학재료를 전혀 사용



NH농협은행 ‘뱅킹 위드 디저트’ 지점. /안상미 기자

하지 않고, 우리밀로 제빵하는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인 빵드감빠뉴와 결합해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개점식에 참석한 이대훈 행장은 “농협

은행은 지역주민의 사랑방”이라며 “금융과 베이커리 이종업종간 결합으로 고객과의 대면접점 기회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보-신한은행, 금융지원 업무협약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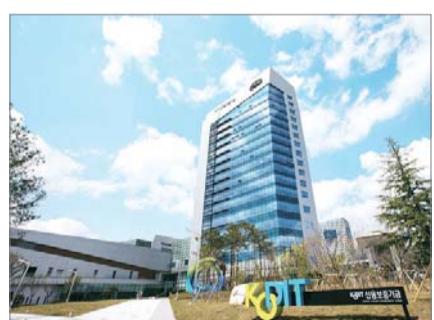
신용보증기금은 8일 신한은행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금융지원 대상은 신성장 공동 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다.

신보는 신한은행과 지난해 3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9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23억원을 통해 총 563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용(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그 외의 기업은 신한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또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신용보증기금 전경. /신용보증기금

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신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통해 총 2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작년 동산금융 공급 2000억원 넘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동산금융대출 공급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반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동산금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은 동산담보에 사물인터넷 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동산자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담보물의 위치정보,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부동산 담보에 비해 관리가 어려웠던 기존 동산담보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등급과 업종 제한을 없애 대출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도 4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접근성은 높이고 금융비용은 낮췄다.

/안상미 기자